

새 책

▶구심도 관찰아(김유경 지음)=책은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관찰아”를 외치며 긍정의 힘으로 살아가는 아흔 살 붕 여사의 유쾌한 일상을 묘사한다. 수많은 굴곡을 건너와 지금을 살아가는 붕 여사의 일상과 삶의 태도를 지켜보며 우리에게 찾아온 또는 앞으로 찾아올 수많은 삶의 고난을 해결할 지혜를 엿볼 수 있다. 남해의봄날. 1만5000원.



▶파도수집노트(이우일 지음)=오즘 ‘파도타기’에 푹 빠진 작가. 세상 모든 파도를 수집할 기세로 눈 떠서 잠들기 전까지 노상 파도만 생각하게 되었다고 털어놓는 그는 파도를 찾아 바다 곳곳을 다닌 에피소드를 책에 담았다. 때 에피소드에서 면막음을 담당하는 38편의 4단 만화를 보는 재미도 있다. 비제. 1만4800원.



▶86세대의 민주주의(민경우 지음)=저자는 “80년대 민주주의 기틀을 놓았던 86세대들이 왜 법치주의의 균열과 민주주의 해체를 가속시켰는지, 그 기원을 밝혀내는데 집중했다”고 밝힌다. 사건의 디테일에 중점을 두기보다 민주화 운동의 중추적인 시간의 전체 맥락 속에서 통사적으로 줄거리를 채워 넣고 복원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인문공간. 2만원.



▶세종의 허리 가우디의 뼈(이지환 지음)=세종대왕, 가우디, 모차르트, 니체, 마리쿠리 등 10명의 역사적 인물들의 질병을 추적하는 과정이 마치 한 편의 추리 소설처럼 펼쳐진다. 저자는 탄탄한 의학적·역사적 배경 속에서 질병의 미스터리를 풀어낸다. 부키. 1만6800원.



▶아내 대신 엄마가 되었습니다(사유리 지음)=지난해 방송인 사유리가 정자 기증을 받아 홀로 아기를 출산한 소식이 알려지며 큰 주목을 받았다. 책을 통해 저자가 왜 정자 기증과 비혼 출산이라는 낯선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등 그동안 방송에서 미처 밝히지 못했던 진심과 속내를 들여다볼 수 있다. 놀. 1만5000원.



▶우리는 글쓰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정지우 지음)=당신 엄마가 당신보다 잘하는 게임(박서련 지음)=밀리의서재가 밀리 오리지널 종이책 정기구독의 새로운 콘텐츠로 선보인 책이다. 정지우 작가는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조언뿐만 아니라 글쓰기를 둘러싼 거의 모든 영역을 전방위적으로 이야기한다. 박서련 작가는 일곱 편의 소설을 통해 여성의 삶을 정확하고 있는 문제들을 조명한다. 각 문예출판사·민음사. 각 1만4000원.



단순성에 집착했더니 복잡한 세상 풀렸다

스티븐 스트로가츠의 ‘미적분의 힘’

무한의 원리 적용한 미적분 인류 문명 바꾼 변화의 법칙

차별과 편견에 맞선 흑인 여성 과학자들이 등장시켜 1960년대 미국의 우주 비행 프로젝트를 그린 ‘히든 피겨스’. 이 영화에서 주인공이 칠판에 분필 글씨를 쓰며 우주선의 여행 경로를 설계하는 데 필요한 수학을 제공하는 장면이 나온다. 모든 종류의 운동은 때 순간 미적분학의 언어로 쓰인 수학 법칙에 따라 움직이면서 한 걸음씩 내딛는다는 뉴턴의 개념을 적용한 결과였다.

미국 스티븐 스트로가츠의 ‘미적분의 힘’은 지금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수학의 발전에 관한 이야기를 담았다. ‘뉴욕 타임스’에 수학 칼럼을 연재하며 영화 코너보다 더 인기 있다는 평을 들었던 저자는 미적분학을 통해 수학과 현실이 만나는 지점을 보여준다.

그에 따르면 미적분학은 복잡한

문제를 단순한 부분들로 쪼개는 데서 출발한다. 연속적인 형태나 물체, 운동, 과정, 현상에 대해 어떤 것들을 알아내려면 그것이 아무리 거칠고 복잡한 것이라고 해도 무한히 연속적으로 이어진 더 단순한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상상하고 부분들을 분석한 뒤 그 결과들을 합쳐 원래의 전체를 이해한다는 ‘무한의 원리’가 그 중심에 있다.

미적분학은 구부러진 형태에 대해 기하학자가 느낀 호기심과 좌절에서 탄생했다. 삼각형, 사각형, 정육면체는 둘레 길이나 면적, 부피를 계산하는 일이 어렵지 않았지만 둥근 물체들은 달랐다. 그래서 곡선들이 수많은 직선 부분들로 구성됐다는 가정 아래 수수께끼를 풀었다. 그다음엔 지구와 태양계에서 일어나는 운동으로 시선을 돌렸다. 떨어지는 물체의 비밀을 알아낸 갈릴레이, 행성 궤도의 법칙을 발견한 케플러, 집선의 기울기를 구한 페르마 등에 이어 뉴턴과 라이프니츠에 이르러 어떤 곡선



이든지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미적분학의 경이로운 세계를 열었다.

뉴턴의 페라다임에 용기를 얻은 미적분학 연구자들은 이번엔 변화의 법칙을 찾아내는 일에 도전했다. 변화의 법칙들은 과학기술, 의학 분야 등에 활용되며 인류의 문명을 바꿔 놓았다. 휴대전화로 음악을 듣거나 GPS 장비로 길을 찾을 때 그 혜택을 누리고 있고, 인간 유전체를 밝혀내거나 사람을 달에 보내는 일도 미적분학으로 가능했다. 그러니 이 세계를 이해하고 싶다면 ‘수포자’ 운운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충호 옮김. 해나무. 2만원. 전선회기자

해마다 기록한 열 편의 글로 읽는 2010년대

사회학자 윤여일의 ‘물음을 위한 물음’

2010년대는 과연 어떠한 시간이었나. 그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코로나19와 함께 온 2020년까지 다 다하며 이명박 봉치, 아랍의 봄, 웰스트리트 점거, 후쿠시마 사태, 박근혜 집권, 세월호 참사, 촛불집회, 대통령 탄핵, 문재인 정권 탄생, 이명박과 박근혜 수감, 트럼프 집권, IS 창궐, 난민 확산, 제노포비아, 반지성주의, 가짜뉴스, 기후위기, 코로나 팬데믹 등 그해의 사회적 사건과 현상들을 추렸다. 과거 그런 일이 있었다를 말하려는 게 아니다. 그때 그때의 상황 속에서 정신의 행방을 주시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싶었다.

제주대 학술연구교수인 사회학자 윤여일의 ‘물음을 위한 물음’은 그렇게 매해 한 편씩 10년 동안 작성한 에세이로 채워졌다. 그의 글에 자주 사용된 주어 ‘나’는 자신을 가리키는 동시에 발화하거나 증언

하는 또 다른 ‘나’다. 이 책은 사회 전역에서 순쉬운 즐거움의 취향이 개발되고 감정적으로 즉각 반응할 소재들이 넘쳐나는데 흔들리는 말들로 문장을 엮어 가며 상황을 진정 경험하려는 작업이다. 그러기 위해선 기성의 문(論)들이 드러낸 것의 이면, 억압한 것들의 흔적을 살펴야 했다.

여기에 제주가 있다. 4·3 70주년을 앞두고 쓴 ‘4·3과 기억의 모습’(2018)에서 저자는 자서전을 번역했던 김시중, 재일조선인 김임만, 고씨 할아버지를 불러내며 한 인간에게서 궁극적으로 빼앗을 수 없는 것은 기억이지 않음이라고 했다. “그런데 기억은 홀로 가질 수 없다. 기억의 편집은 보고 듣는 자와 관계를 생성하는 일이다.”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며 제주도청 맞은편에 들어선 천막촌 이야기는 ‘대피



소의 문학, 곡의 동화’(2019)에 풀었다. 부당한 현실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모여 생겨난 천막촌,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이들이 흘러들어와 만들어진 대피소를 다루며 그는 묻는다. “앞으로의 시대에는 대피소가 구해진 사람들을 맞이할 뿐 아니라 구해야 할 사람들을 찾아 나서야 하지 않을까. 이를 위해 어떠한 대피소의 정치철학이 필요할 것인가.” 갈무리. 1만9000원.

전선회기자 sunny@ihalla.com

이 책 유철인의 ‘...자기 민족지 제주도’ 제일제주인, 4·3, 해녀로 보는 제주 섬



유철인 교수는 제주사람과 제주문화를 들여다보는 세 가지 창 중 하나로 제주해녀를 제시했다.

인류학자인 그가 제주에 살기 시작한 해는 1984년 2월이다. 서울에서 제주로 오자마자 그의 귀에 가장 먼저 들어온 말은 ‘육지’였다. 그렇게 섬을 만났던 그가 도서성에 대한 이해로 출발해 제주사람과 제주문화를 다룬 연구서를 냈다. 유철인 제주대 철학과 교수의 ‘문화인류학자의 자기 민족지 제주도’다.

“자기 민족지”라는 이름을 붙인 데는 제주도가 삶의 터전이자 연구의 대상이 된 오늘날 그의 상황이 작용했다. 현장에 들어가 현지조사를 하는 인류학적 여정이 제주도 이주로 끝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화를 알아가기 위해 개인적 경험을 성찰·분석하는 ‘자기 민족지’의 개념을 끌어왔다.

유 교수는 이 책에 1980년대 중반 이후 최근까지 학술지 논문, 학술회의 발표, 청탁 원고 형식으로 썼던 글을 대폭 수정·보완해 실었다. 이 과정에서 제주를 들여다보는 창으로 제일제주인·관광객 존재 영향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제주사람이라는 문화적 정체성이 어느 정도 고립성을 유지하던 섬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배타성을 바탕으로 ‘육지사람’인 외부인과 구별 짓기를 통해 드러나다고 했다. 기본적으로 출생지로 제주사람을 구분하지만, 제주사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고 상황에 따른 인식만 있다면 육지에서 온

이주민과 관광객의 존재가 제주사람이라는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2001~2004년과 2010년 일본의 해녀인 ‘아마’에 대한 단기간 현지조사를 토대로 비교문화의 관점에서 제주해녀의 가치도 살폈다. 2016년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되기에 앞서 유 교수는 2006년 6월 해녀박물관 개관 기념 국제학술회의에서 제주해녀(문화)를 유네스코에 등재하자고 처음 제안했다. 그는 “19세기 말 제주해녀가 육지로 바깥돌질을 나가기 이전 우리나라에는 해녀가 제주도에만 존재했다고 추측된다”며 유네스코 등재 추진이 공동체 정신, 지속가능한 발전, 여성의 권리 등 제주해녀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민속원. 1만7000원. 전선회기자



전선회기자

제주도에서 직접 생산하는 팬 전문 제조업체 보조사업 전문 시공업체

(주)팜그린텍

특허 제10-2078975호

Farm Green Tech
공기교반기(130W)

특허받은 모터캡 사용으로 모터 2중보호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Farm Green Tech
천장형환풍기(330W)

특허 제10-2182942호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Farm Green Tech
환풍기(800W)

프레임 보강 셔터 사용 -내구성 향상
고풍압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셔터 별도판매
모터 별도판매

Farm Green Tech
송풍팬(60W)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Farm Green Tech
송풍팬(130W)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주)팜그린텍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신상로 226 T. 064)732.0440~1, F. 064)763.0440 www.팜그린텍.kr / www.fgtech.kr